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e and the Prospects of Korean Studies in China

저자 張國強, 鄭傑
(Authors) Zhang Guoqiang, Zheng Jie

출처 동아문화 52, 2014.11, 65-83 (19 pages)
(Source) The Journal of S.N.U. Institute for Asian Studies 52, 2014.11,
65-83 (19 pages)

발행처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Publisher) Institute for Asian Studies Colleges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39740>

APA Style 張國強, 鄭傑 (2014).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전망. 동아문
화, 52, 65-83.

이용정보 서울대학교
(Accessed) 147.46.182.23
2015/12/30 10:40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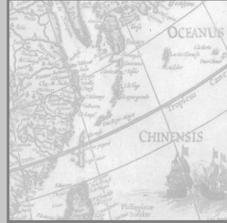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東 · 亞 · 文 · 化 · 5 2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전망

张国强, 郑杰

1. 서론
2. 중한 수교 이전의 한국학 연구
 - 1) 1949년부터 1980년까지의 한국학 연구
 - 2) 1980년대의 한국학 연구
3. 중한 수교 이후의 한국학 연구
 - 1) 1990년대의 한국학 연구
 - 2) 2000년 이후의 한국학 연구
4. 중국내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 1) 한국 경제, 정치와 역사에 대한 연구 전망
 - 2)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3)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연구로의 확대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전망*

张国强**, 郑杰***

1. 서론

한국학은 ‘한국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한국을 독립된 문화권으로 인정하고 그 독자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는 학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대한 지역적 이해 혹은 연구를 말한다.¹⁾ 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학(National studies)은 전자의 의미가 강하며,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Korean studies)은 후자의 의미를 띠고 있다. 중국에서도 학문 연구의 차원에서 한국학은 미국학, 몽골학과 같은 ‘지역적’ 분류의 개념으로 한국에 대한 지역적 이해 혹은 연구를 말한다. 한국학 개념에 대해 중국학자 계선림(季羨林)은 조선-한국학이라고

* 中國大連外國語大學研究生教學改革立項(亞非語言文學專業碩士研究生學術能力培養模式建設)

** 中國大連外國語大學遼寧省東北亞比較文化研究創新團隊,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1) 김일권, 「중국의 한국학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8. p4.

해서 ‘한반도에 관한 모든 방면의 학문으로서 지리, 인종, 언어, 역사, 문화, 문학, 예술, 철학, 종교’ 등 내용을 포함하는 내함이 넓은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중국 학계의 한국학 연구의 변화를 추적 정리하고 미래 한국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학자인 심정창, 우림걸, 이덕춘, 석원화, 유보전, 등에 의해, 한국 학자인 김운태, 이규태, 송현호 등에 의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글의 연구는 중한 관계의 발전과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고찰하면서 새로운 연구 동향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오래 전부터였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열전’편에서 한반도에 위치한 여러 국가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로, 역대 왕조들은 정사(正史)에 ‘동이열전’을 두어 한반도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한반도를 다녀간 중국 역대 왕조의 사신과 상인들은 한국의 풍속과 문화·산물·예술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남겼다. 그러나 중국에서 학문의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다. 이 기간에 한국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1992년 중한 수교 이전과 수교 이후로 나뉘 볼 수 있다.

2. 중한 수교 이전의 한국학 연구

주지하듯이 1949년 중국의 내전이 종식된 이후 중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남한과 대치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중국은 남한과의 학술교류가 전무한 상태가 된다. 냉전

체계를 바탕으로 중한 수교 이전의 중국 내 한국학 연구는 북한과의 교류나 남한과의 대치를 목적으로 외교적 차원이나 군사적 차원에서 비롯된 성격이 강했다.

대학에서 한국학에 대한 연구는 최초로 1946년 당시 중국 수도인 남경에 있는 국립동방어문전문대학에 설치된 한국어과에서 시작되었다. 1949년 국립동방어문전문대학의 한국어과는 북경대학교에 병합되어 조선어과로 개명되었다. 1949년에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자치제도의 일환으로 연변조선족자치구에 연변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연변대학교는 조선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각 분야의 고급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종합대학이다. 그 후 1950년대부터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1952년), 낙양외국어대학교(1953년), 북경제2외국어대학교(1972년)에 조선어과가 설립되었는데 1980년대 말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²⁾ 이러한 대학의 조선어학과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왔다. 연구소는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연변대학교 조선문제연구소, 길림사화과학원 조선연구소 단 3개뿐이다.

1) 1949년부터 1980년까지의 한국학 연구

1980년대까지 중국 내 한국학 연구 관련 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은 그만큼 한국학에 대한 수요나 필요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50년대의 대약진운동, 60~70년대의 문화대혁명으로 국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강조에 여념이 없던 이 시기에 국제문제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2) 장국강,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중국학』, 2009. P105, P107.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학 연구 영역은 북한의 정치, 국제관계,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성과에는 강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학에 관한 책이 210여 권 출간되었는데 한국전쟁과 북한 정권의 선전을 내용으로 한 책은 약 60 권이며 북한 문학 작품과 문화 예술을 소개한 책은 약 80권이다. 동아시아 관계사, 중한 관계사, 한국 역사 등을 주제로 연구한 책은 약 40권이 되었다.³⁾

石源华(2002)에서 당시 냉전 시대의 영향을 깊게 받은 연구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영역이 정치, 국제 관계에 편중되어 있고 경제 등 다른 분야는 비교적 적게 다루었다. 둘째, 연구 내용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 관한 것으로, 그 중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셋째, 한국을 반영한 작품은 극소수였으며, 당시의 시대적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적대적 감정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2) 1980년대의 한국학 연구

1980년부터 실시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가 경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국제 지역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 및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국학 연구도 성장추세로 진입했다.

1980년대 중국의 한국학 관련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구 중심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총 660여 편의 연구

3) 「한국 연구 중문 문헌 목록(1912-1993)」(심홍선 등, 중국: 항주출판사, 1994)에 수록된 연구 성과물을 통계함.

성과물 중 경제 영역에서 약 230여 편이 발표되어 총 저작의 35%를 차지할 정도였다.⁴⁾ 이것은 개혁개방 초기 ‘아시아 경제 발전의 네 마리 용’의 하나로써의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본받으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중요한 연구성과물은 「南朝鲜经济」(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研究所编), 「战后南朝鲜经济」(张世和著), 「南朝鲜经济开发战略和展望」(张世和著), 「朝鲜经济史概论」(白南风著), 「南朝鲜十大产业」(白南风著), 「南朝鲜四十年」(车哲九著), 「南朝鲜对外贸易」(张英著), 「南朝鲜经济分析」(赵凤彬著)⁵⁾ 등과 같이 한국 해방 이후 경제 발전과정과 경험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 영역 외에 역사 영역에서 중한관계사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도 관심 영역이 되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은 「中朝关系史论文集」(杨昭全著), 「中朝关系简史」(杨昭全著), 「中朝边界史」(杨昭全著), 「朝鲜近代史」(曹中屏著), 「朝鲜近代史研究」(金光洙等著), 「大韩民国临时政府在中国」(沐涛等著), 「朝鲜独立运动与中国南北政府」(石源华著) 등이 있다. 이러한 저서들은 한국 독립운동과 한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근대 이래 중한 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한 수교에 대한 기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역사적인 순리성과 기초를 이론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중한 관계 증문논저 목록 증정본」(황관중, 대만: 중앙연구원동북아구역연구, 2000)에 수록된 연구 성과물을 통계함.

5) 당시 한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한국을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불렀다. 당시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연구를 일괄적으로 ‘조선연구(朝鮮研究)’라고 칭하였다.

3. 중한 수교 이후의 한국학 연구

1992년 중한 수교는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대치 관계를 종결하고 새로운 교류 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증대되었다. 물론 외교관계의 수립이 이전에 비해 중국 내 한국학 연구에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류’로 상징되는 대중문화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한국학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다.

중한 수교를 계기로 중국인들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졌으며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 대학에서는 앞 다투어 한국어학과를 설립하였는데 2012년까지 2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어과를 개설한 중국 대학이 180개가 넘었다. 그리고 한국학 관련 문제를 핵심주제로 삼는 연구기관이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표 1>과 같다.

대학 내의 한국학 연구기관들은 단순히 학술 연구보다 한국학 전문인재 양성, 중한 학술 교류 등과 같이 다방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대학 내의 연구센터 외에 북경지역과 동북지역의 사회과학연구원, 정부의 부속 연구기관 등에 설립된 한국학 연구소는 전문적인 한국학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 한국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회는 中国朝鲜史研究会와 中国韩国语教育研究회가 있다. 이들 학회는 정기적으로 한국학 관련 학술 대회를 열고 한국학 연구 활동과 연구성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표 1〉 중국 내 대표적인 한국학연구소

	연구 기관 명칭	설립연도	주요 연구 영역
1	延边大学朝鮮-韩国学研究中心	1989,	문학, 문화, 역사
2	北京大学韩国学研究中心	1991, 1993	문학, 문화, 역사
3	山东大学韩国研究中心	1992	정치, 경제, 문화, 문화
4	教育部韩国研究中心(山东大)	2006	
5	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	1992	정치 역사
6	浙江大学韩国研究所	1993	경제
7	辽宁大学韩国学研究中心	1993	경제
8	大连外国语大学东北亚研究中心	1995, 2005	정치, 경제, 문화
9	南京大学韩国研究所	1997	역사
10	辽东学院朝鮮半島研究所		경제

1) 1990년대의 한국학 연구

중한 수교 이후인 1990년대에 한국학 연구의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 영역으로는 80년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영역을 꼽을 수 있다. 통계된 1,772편의 연구 성과물 중 경제영역 분야의 비율이 29.3%, 그와 더불어 한국국정연구, 정치외교영역, 문학언어영역의 성과물도 많이 발표되었다.⁶⁾

이 시기에 한국 경제에 관한 중요한 연구 성과물은 「亚太时代与图们江开发」(崔龙鹤著), 「环黄海区域经济发展研究—中韩经济展望」(孔德涌著), 「中韩经济特区比较研究」(赵凤彬著), 「韩国企业的国际化和经营战略」(沈求著), 「韩国产业研究」(朴昌根等著), 「中韩财政比较研究」(朱柏

6) 「중한 관계 증문논저 목록 증정본」(황관중, 대만: 중앙연구원동북아구역연구, 2000)에 수록된 연구 성과물을 통계함.

铭著), 「中韩区域经济发展研究」(金元欢著), 「中韩经济发展比较研究」(沈善洪主编), 「中韩证券市场发展及比较研究」(闻岳春著) 등이 있다. 1980년대에는 주로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1990년대에는 연구의 중심이 중한 경제정책과 경제 발전 과정의 비교 연구와 중한 경제공동체의 연구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한국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 성과물도 몇 편 나왔다.

한국 정치외교 영역의 연구는 주로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전기, 저서에 대한 번역, 한국 경제 발전 중에 정치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통일 문제, 그리고 한반도사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길림성사회과학원, 북경대학교, 남경대학교의 한국학 연구기관에서 중한관계사 연구에 대한 중요한 성과물들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中国—朝鲜、韩国关系史』(杨昭全编著), 『中韩关系史』(古代、近代、现代 3卷)(北京大学韩国学研究中心编) 등이 있다. 복단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독립운동사, 한국반일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에 대한 연구도 많이 발표하였다.

2) 2000년 이후의 한국학 연구

2000년 이후 중국 내 한국학 연구는 더욱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연구 성과물의 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연구 영역, 연구진 구성 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0~2009년에 발표된 연구 성과물(저서, 석·박사논문, 학술논문)은 총 8,451편으로 통계되었는데 1949~1999년의 총 5,668편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⁷⁾ 영역별로 보면 언어문학과 교육 영역의 연구 성

7) 李奎泰, 「当代韩国“中国学”与中国“韩国学”之比较」, 『当代韩国』2012(1), p.97.

과물이 크게 증가하여서 경제 영역, 정치 영역과 함께 한국학 연구의 주도 영역이 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는 전 시기에 이어 연구영역이 더욱 세분화하고 새롭게 나타난 한국 경제의 상황을 연구를 하였다. 정치외교 영역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북핵문제, 육자회담, 동북아안전 문제 등에 관한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이러한 한국 경제와 정치외교 영역에 대한 연구는 동북아 지역학의 일환으로 연구되는 동시에 동북아 여러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탐구하였다.

한국 내정에 관한 연구는 산동대학교 한국대학에서 2007년부터 1년에 한 권씩 출간한 「BLUE BOOK OF KOREA 한국발전보고」는 해당년도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군사, 정보산업, 문화산업, 관광업, 사회과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중대한 성과로 정부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동대학교 한국대학에는 중국 교육부의 지역학과 국가별 연구 기지인 “한국학연구기지”가 설립되어 중국에서 한국학 연구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영역별 성과물 보면 언어·문학·교육 영역의 성과가 37.4%나 되어서 한국학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되었다.⁸⁾ 언어·문학·교육 영역이 이처럼 많이 늘어난 것은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련된다. 중국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전공은 대부분이 한국어언어문학전공인데다 새로 채용한 교사들이 한국에서 언어학이나 문학을 전공한 석·박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내 석·박사 학위 수여권이 있는 대학교의 전공방향은 언어학과 문학이 비중이 가장 높다. 한국학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 박사 과정 교육을

8) 李奎泰, 「当代韩国“中国学”与中国“韩国学”之比较」, 『当代韩国』2012(1), p.97.

〈표 2〉 한국학 전공 박사 과정을 설치한 중국 대학교⁹⁾

대학교명	전공
1. 북경대학교	조선어한국어번역연구, 조선반도역사와 문화, 한국언어학과 한국교육학
2. 연변대학교	조선언어, 조선문학, 조한(朝漢)언어대비
3. 복단대학교	한국어번역연구, 한국어언어학연구, 중한언어대비
4. 길림대학교	중한문학비교 및 한국문학연구 ¹⁰⁾
5. 북경외국어대학교	중한현대문학비교연구, 중한번역연구
6. 상해외국어대학교	중조(中朝)언어대비연구
7. 중앙민족대학교	조선고전문학, 중조(中朝)비교문학
8. 낙양외국어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
9. 산둥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
10. 대련외국어대학교	동북아시아 외사외교 고급인재 양성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를 참고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중국에서 한국학 관련 전공의 박사 교육은 2000년에 들어서 크게 발전했다. 통계된 자료를 보면 2000년 이전에 발표된 박사 논문은 5편밖에 없는데 2000~2009년 기간에는 107편이 발표되었다. 이들 박사 논문의 연구 영역은 대부분이 언어·문학 쪽이다.

9) 중국에는 공식 통계 자료가 없다. 이 자료는 2014년 3월 16일까지 전국 각 대학교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이다.

10) 2013년도까지 박사전공이 있었다.

4. 중국내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1) 한국 경제, 정치와 역사에 대한 연구 전망

1992년 중한 수교 후 중국 대외 관계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중한 외교관계의 지속적인 격상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가 급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한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은 일종의 지역연구(Area Studies)로서, 다시 말하자면 타자(他者)의 시선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연구이다. 이 때문에 한국학의 동력은 해당 국가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발전과정을 볼 때 연구의 시작은 국가정책 전략수단이라는 원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을 연구하는 성격이 강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학 연구는 경제 영역, 정치 영역과 역사 영역에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한 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관계 등 실질적인 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건설을 위주로 개혁개방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 내지 세계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은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한 경제협력은 한국 대중국 투자가 중국 연해(沿海)지역으로부터 내륙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중한 경제는 상호의 보완성이 있고 지역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내 한국학 경제 영역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새로운 경제 상황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은 평화지향적인 나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한 국제문제로 삼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국 정치, 외교, 안보 등 영역은 역시 한국학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계속 연구될 것이다.

중한 두 나라 사이에는 고구려사와 같은 역사적인 분쟁이 존재하며, 탈북자 문제와 같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학 연구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그 동안 한국학 역사 영역의 연구는 중한관계사, 중국내의 한국 독립운동에 관해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독립운동사의 시야를 넘어 재중 ‘한인’, ‘한국 교민’, ‘한인 사회’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근·현대 시기 중한 간의 ‘상호 인식’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는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한 역사적 고찰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중국 내 한국학 연구를 보면 한국 경제와 정치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향은 인문학 연구를 중요시하는 유럽의 지역학 연구와 달리 당대 정치경제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지역학 연구에 가깝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의 붐이 일어났다. 하지만 인문학의 중요한 영역인 전통문화, 철학, 사상에 대한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중국 여러 대학에 한국학대학, 한국어과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한국어 교육 분야에 집중된 ‘교육 중심’의 한국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통 문화 연구는 매우 취약하다.

중한 수교 이후 인문사회 교류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한 광범위한 인문사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중한양

국의 감정적 갈등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모 여론조사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36%, 부정적인 평가는 50%가 되었다. 동시에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정면평가는 38%, 부정적인 평가는 53%나 되었다.¹¹⁾ 2011년의 “한국과 중국의 청년의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비 우호정서의 원인을, 한국인의 대중국편견 및 우월감(22.8%), 중국문화재산권에 대한 마찰과 왜곡(22.6%), 한국 언론의 과도한 왜곡보도(12.1%), 중국변화에 대한 무지(11.9%)라고 하였다.¹²⁾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한국인들의 행태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류’의 지나친 팽창을 경계하려는 한국드라마 수입제한 조치 등의 ‘반한류(反韓流)’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중한 양국 간의 지연적, 민족적, 역사문화적 상호관계의 경험으로 인한 양국 사이의 나타난 특별한 콤플렉스(complex)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한 관계의 콤플렉스 문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 즉 문화 교류와 학문적 문화 연구를 통해서 문화 정체성, 문화적 인동을 찾아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학에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과 같은 학문적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양국이 수천 년 동안 공유했던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양국 간의 공유지식을 누적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11) 「EAI 여론브리핑 95호」, “27개국 국민이 바라본 17개국의 국제적 평판”, EAI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http://www.eai.or.kr> 2011. 7. 25 검색).

12) 이규태, 「한중관계 20년: 사실과 정경」, 중국 제13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중국 중산대학교, 2012년 11월 6일~9일. P.19에서 재인용.

학자 대다수는 한국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전의 한국학 연구자보다 한국어에 능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우세가 있다. 이들은 미래 한국학 연구의 주도자다. 향후 중한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젊은 한국학 연구자 수의 증가, 연구 수준의 제고를 고려하면, 인문 문화 영역이 앞으로 중국 한국학학계에서도 주요 관심 영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3)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연구로의 확대

지금 중국 정부의 주도로 동북아시아 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9월에 중한일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중한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사무국은 기존 3국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넘어, 향후에는 정부 및 민간을 망라한 3국 제반 협력의 허브로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사무국 홈페이지의 설명이다.¹³⁾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된 사무국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중국에서도 외교부의 주도로 하여 지금 중국외교대학, 남개대학교, 길림성, 대련외국어대학교에 중일한협력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주로 동북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문제에 관한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에는 2013년에 중국에서 유일한 동북아 외교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연구 기관과 박사과정의 설립으로 예전에 한국학, 일본학, 미국

13) http://kr.tcs-asia.org/dnb/user/userpage.php?lpage=1_2_1_overview

학, 러시아학 등으로 불리는 국가별 지역적 연구가 동북아시아 지역학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중국내의 한국학 연구는 한국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치, 경제 협력 문제, 동북아시아지역 문화 공동체 문제, 동북아시아지역 환경문제 등의 아시아지역학 문제를 많이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태, 「중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 『中国研究』 第38卷, 2004.
- 김일권, 「중국의 한국학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석사논문, 2008.
- 박문자, 「중국 대학의 한국학 연구와 그 역할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1호, 2005.
- 송현호, 「중국 지역의 한국학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2011.
- 심의립, 「中国에서의 韩国学 研究」, 『아시아문화』 제6호, 1990.
- 이규태, 「한중관계 20년: 사실과 정결」, 중국 제13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중국 중산대학교, 2012년 11월 6일~9일, 2012.
- 장국강,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중국학』, 2009.
- 蔡美花, 「东亚韩国学方法之探索」, 『东疆学刊』 第25卷 第4期, 2008.
- 李得春, 「韩国学和中国的韩国学」, 『东疆学刊』 第23卷 第3期, 2006.
- 李奎泰, 「当代韩国“中国学”与中国“韩国学”之比较」, 『当代韩国』 春季号, 2012.
- 刘宝全, 「近三年来中国的韩国学研究—综述与展望」, 『当代韩国』 春季号, 2009.
- 石源华, 「中国韩国学研究的回顾与展望」, 『当代韩国』 春季号, 2002.
- 石源华, 「中韩建交二十年来中国韩国学现状及发展」, 『当代韩国』 秋季号, 2012.

Abstract

The Current State and the Prospects of Korean Studies in China

Zhang Guoqiang and Zheng Jie

With the continuous progress on China-Korea communication, Korean Studies in China is experiencing a leaping development. This essay will focus on two recent stages marked by the establishment of China-Korea Diplomatic Relations.

The Chinese Open-door policy implemented around the 1980's has brought great impact on Korean Studies in China. Ever since then the studies were distinguished by the year 1980 and divided into two stages as 1949-1980 and 1980-1992 before the Diplomatic Relations were set up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e two stages after are divided into the 1990's and 2000-present.

This essay is written to explore the history of Korean Studies in China, summarizing the features at each stage and discussing the study prospects based on a chronological research on the motivation, content, institution and major achievements of Chinese scholars. In addition to the continuous studies upon the newly emerged economic situations in Korea with the regional cooperation support due to the complimentary advantage of the two countries, there will be more weight put on Korean politics,

diplomats, security studies. Despite of the existing historical dispute issues, necessary reviews on relevant aspects will be pushed forward to further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s. It is also predictable that Humanistic culture will be a major focus giving credits to the ascending numbers and research levels of younger generation scholars of Korean Studies in China.

Key Words: China and Korea, Korean Studies, Landscape, Prospect, Korean Culture